



第12話

個人發明家は
衰殘해가고 있는가

—承 前—

지금까지 個人發明家들의 단편적인 生涯에서
홀터 본 바로는 發明의 才質과 金錢의 富와는 별
로 一致하지 못하는 印象을 받았다.

그 代表的 實例를 發明王 에디슨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末年에 심지어 이런 말을 남기고
갔다. 「나에게 있어 發明特許證은 訴訟에의 招
待狀과 同義語이다.」

빛 잃어가는 個人發明

라디오의 偉大한 發明家の 한 사람인 포리스
트는 예일大學에 가서 機械工學博士學位를 받기
훨씬 전에 이미 라디오를 發明하였으나 自己 完
成 전까지는 個人的으로 發明活動에 솔한 隘路
를 겪었다고 그의 自叙傳에서 實吐하고 있다.

「孤獨은 말할 나위 없고 實驗機會는 전혀 갖
지 못했으며 豫測과 想像과 그리고 懷疑의 源泉
을 내 마음 속으로부터 求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空虛 속에서 最高의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나 自身을 중횡무진 희생하면
서 發明의 才能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고 그는 述懷하고 있다.

이렇듯 著名한 個人發明家들이 지금도 存在하
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量
의으로는 늘고 있다손 치더라도 企業의 그룹發
明家들과의 構成比率은 차츰 떨어지고 있다. 그
것은 相對的으로 企業發明의 成長이 個人發明을
알지르기 때문인 것이다.

좀 오랜 統計이긴 하지만 美國에서는 企業에
대한 特許出願率이 今世紀初의 18%에서 1936年
에는 58%로 確實히 增加하였다.

英國에서는 企業出願이 1913년에 全體의 약 15%, 1938년에는 58%, 1955년에 68%로 늘어났다. 반면에 個人出願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결론이다.

放電裝置에 관련된 企業의 特許는 현재 95%이며 樹脂 및 셀룰로즈, 一般有機化學, 染料 및 染色, 計算機器, 化學, 無機化學, 蒸溜油 및 塗料, 電子管回路 등에 있어서는 企業特許의 比率이 92% 내지 97%에 달한다.

特許統計가 믿을만한 것이라면 그 數字에서 保人發明이 相對的으로 重要性을 잃어가고 있으며 어떤 産業分野에서는 個人의 役割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물론 이것은 美國과 英國의 統計의 數字이고 우리나라와 같은 技術後進國의 경우는 아직 個人發明家들의 活動이 돋보이는 分野가 많다. 특히 日常家庭用品이라든가 中企業企業的 生産技術 또는 物品에 있어서는 그것이 實用新案이긴 하지만 거의 80%가 개인발명가들에 의해 出願되고 있다.

歐美諸國에서 個人發明家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옛날과는 달리 個人發明家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게 된 것은 돈 때문이라기 보다 그들의 일에 대한 現代의 知識을 끌어낼만큼 充分히 높은 訓練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目標가 設定된 研究에 대해 보다 많은 機關들이 設置되어 있으므로 그 方向을 따라 일하려는 姿勢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化學製品, 특히 生化學製品, 電子工學, 核物理學과 같은 分野에 있어서는 複雜하고 高價인 裝置가 필요하다. 그러나 大發明이나 小發明 사이에도, 比較的 낡은 産業이나 비교적 새로운 産業에 있어서는, 또 各樣各色的 技術에 있어서는 一般原則에 대하여 例外가 許多하다.

20世紀의 纖維工業에 있어서는 重要한 發明의 殆半이 값비싼 機器나 巨額의 費用없이도 가능하였다. 제트엔진의 基本的 發明은 호이틀에 의해 거의 赤手空拳으로 길기도 긴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사이크로트론을 發明한 E·O·로렌스는 精巧한 實驗設備를 갖추고 成功한 것이 아니다. 트랜지스터의 發明도 값비싼 장치는 아무런 필요도 없었다. 텔레비전의 開拓者의 研究에 있어서. 판스워스는 初期段階에서는 임시변통의 장치를 이용해서 연구하였고 사실상 비용이 드는 考案은 피하였다.

그밖에 에어 콘디셔너, 自動變速裝置, 베클라이트, 파워 스티어링, 三極眞空管, 合成偏光子, 제로그래피, 코타크롬, 티탄, 電氣集塵機 등도 큰돈 들이지 않고 이루어진 發明들이다.

그리고 多數의 個人發明家들이 실제로 一流科學教育 또는 技術教育을 받고 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科學技術文獻은 광범위에 걸쳐 있으며 入手하기도 쉽고 값도 비싸지 않지만 分野가 너무나 광범위하므로 어느 個人이 文獻을 一括해서 保有하기에는 힘들다. 科學技術研究機關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學會나 團體와 接할 수 있으며 産業界의 研究團體나 政府機關으로부터 支援을 받을 수도 있다.

다빈치도 에디슨도 社會를 慨嘆

發明家들이 社會에서 冷待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오늘날 비로서 있는 일은 아니다. 歷史적으로 보더라도 冷待風潮가 뿌리 깊게 깔려 있다.

그 事例 몇가지를 16世紀의 레오날드 다 빈치에서 찾아진다.

「가령 내가 실제로 나를 非難하는 蒼者들처럼 引用力은 없으나 치더라도 경험에 의해 判斷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며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發明家로서의 나를 輕蔑한다면 그만큼 그들 自身에게도 非難의 禍살이 퍼부어질 것이다.」라고 다빈치는 社會의 非難에 攻駁을 가했다.

또 윌리엄 피디卿은 17世紀에 산 사람으로서 하찮은 逆境에서 坐折할 人物은 아니었으나 그 自身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痛烈히 分析하였다.

「가끔 自己 自身의 功勞에 대한 社會의 評判에 도취돼버리는 發明家は 자기를 보는 世人들

■ 發明教室 ■

의 눈에 겁을 먹고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는發明家가 되고 만다. 이런發明家は 죽어 버리고 말거나 자기의 뜻을 굽혀 마침내는 자기計劃을 이루기 위해 契約된 빛에 억매어 錢主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수가 많다. 이러한發明家は 存在價值마저 잃어버리고 만다」

20世紀初의 發明王 에디슨은 이렇게 喝破하였다.

「나는 내 發明으로부터 아무런 利益도 보지 못했다. 내 生涯에서 오늘날까지 1,180건의 特許를 얻었다. 實驗費用과 法廷에서의 權利鬭爭을 위한 費用을 計算하려면 나의 特許는 特許使

用料로서 내게 되돌아온 것 이상의 費用이 들었다. 나는 한 發明家로서가 아니라 製造業者로서 내 製品의 紹介와 販賣 때문에 돈이 벌렸다. 美國에는 侵害로부터 特許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잘것 없는 制度가 있다.

나는 가난한 몇몇 發明家들을 알고 있다. 그들의 權利를 박탈하려는 美國의 虛點 투성이의 保護制度에 의해 許容되는 海賊들이 없었고 가난에 쪼들리지만 았았다면 그들의 아이디어는 그들을 百萬長者로 만들었을 것이다. 權利의 박탈은 위대한 時代를 劃할만한 特許의 경우 특히 그러했다」 <Ahn>

5月的 메모

◁本會主要實行業務▷

- | | | |
|--|---|--------------------------------------|
| 2日 ◇特許公報 第809號 發刊 | ◇第18回 發明의 날 紀念 全國發明獎勵大會 開催 | ◇유럽 地域工業所有權視察團 派遣(第4日次) |
| 3日 ◇大字電子(仁川工場) 社内研修 講座後援 | ◇優秀發明作文·漫畫集發刊 | 27日 ◇特許公報 第815號 發刊 |
| 7日 ◇第404回 이 週의 優秀發明 「近視矯正 치료기」選定 報道依賴 | 21日 ◇實用新案公報 第598號 發刊 | 28日 ◇公開特許公報 第15號 發刊 |
| 9日 ◇實用新案公報 第597號 發刊 | ◇公開特許公報 第13號 發刊 | ◇第407回 이 週의 優秀發明 「合成樹脂製칠기工藝品」選定 報道依賴 |
| 11日 ◇特許公報 第810號 發刊 | ◇第406回 이 週의 優秀發明 「구멍탄 交替時間自動警報 裝置」選定 報道依賴 | ◇유럽 地域工業所有權視察團 派遣(第5日次) |
| 12日 ◇意匠公報 第348號 發刊 | 23日 ◇實用新案公報 第599號 發刊 | 30日 ◇公開特許公報 第16號 發刊 |
| ◇工業所有權大法院判例(4月分) 發刊 | ◇유럽 地域工業所有權視察團 派遣(第1日次) | ◇公開特許公報 第17號 發刊 |
| 13日 ◇意匠公報 第349號 發刊 | ◇公開特許公報 第14號發刊 | ◇第7回 卍 國際發明展受賞者 歸國歡迎行事 |
| 14日 ◇特許公報 第811號 發刊 | 24日 ◇特許公報 第813號 發刊 | ◇유럽 地域工業所有權視察團 派遣(第6日次) |
| ◇第405回 이 週의 優秀發明 「차량용 電機兼 空氣注入 機」選定 報道依賴 | ◇유럽 地域工業所有權視察團 派遣(第2日次) | 31日 ◇公開特許公報 第18號 發刊 |
| 16日 ◇意匠公報 第350號 發刊 | 25日 ◇特許公報 第814號 發刊 | ◇公開特許公報 第19號 發刊 |
| 17日 ◇意匠公報 第351號 發刊 | ◇意匠公報 第353號 發刊 | ◇유럽 地域工業所有權視察團 派遣(第7日次) |
| ◇公開特許公報 第10號 發刊 | ◇會誌「發明特許」5月號發刊 | ◇海外情報第78輯 發刊 |
| 18日 ◇特許公報 第812號 發刊 | ◇유럽 地域工業所有權視察團 派遣(第3日次) | ◇海外出願費用補助申請接受 마감(尹有澤 集光式集熱機 등 65件) |
| ◇公開特許公報 第11號 發刊 | 26日 ◇實用新案公報 第600號 發刊 | |
| 19日 ◇意匠公報 第352號 發刊 | ◇第21回 發明學術大會 開催 | |
| ◇公開特許公報 第12號 發刊 | ◇發特協資料291號(學術大會 資料)發刊 | |
| ◇商標公報 第231號 發刊 | | |